

보도시점 (지 면) 5. 16.(화) 조간
(인터넷) 5. 15.(월) 12:00

청년 관련 10대 과제 발표 및 '2030 자문단-중기단' 첫 회의 개최

- 중소기업부 핵심정책 중 청년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직접 선정
- 10대 과제에 대한 청년층(2030 자문단)의 정책제언 검토 및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부 20~30대 직원으로 '2030 중기단' 구성·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30 자문단 및 중기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관련 10대 과제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부 정책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30 자문단'은 작년 11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중소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30 자문단 : (단장) 중소기업부 청년보좌역
(단원) 벤처 창업자, 학계, 소상공인 상담사(컨설턴트) 등 20명(비상임)

10대 과제 주요 분야는 창업벤처기술 4개, 디지털 2개, 중소기업 정책 2개, 소상공인 2개로 되어 있다. 지난 4월 7일 '2030 자문단'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부 정책 중 청년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했다.

'2030 중기단'은 10대 과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부 20~30대 직원 2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청년(2030 자문단)의 정책제언을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2030 자문단-중기단' 첫 회의에서는 2030 자문단과 중기단 상호 소개 및 10대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호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과 중기단이 잘 협력해서 청년의 현장 목소리가 중소기업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작년 11월에 '2030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번에 10대 과제 선정과 '2030 중기단'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이 청년 친화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개선 성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명진 (044-204-7950)
		담당자	사무관	백승표 (044-204-7951)
		담당자	주무관	정 운 (044-204-7955)



참고

10대 과제 현황

번호	분야	과제명	세부과제
1	창업벤처기술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①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② 스타트업 해외진출 활성화
2		청년 창업 활성화	① 대학을 활용한 지역청년, 소상공인 지원 ② 청년창업사관학교 리모델링
3		신산업 스타트업 집중 육성	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② 핵심 분야 스타트업과의 소통 강화
4		성과중심 R&D 전략성 확보	①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② 기술기반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방안 마련 등
5	중소기업정책	수출정책 개편	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정책 추진 ② 글로벌 현지 수출마케팅 전개
6		글로벌 전략행보 연계 신시장 개척단 운영	① 중소벤처 글로벌 진출 전략행보 강화 ② 중소기업 신시장 목표 설정 및 개척단 파견조사를 통한 진출전략 제시
7	디지털	K-스타버스 추진	① K-스타버스 추진
8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①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양성 ③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9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①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 추진 ② 소상공인 혁신허브 조성 ③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 ④ 소상공인 기준 개편
10		전국 규모 소비축제 개최	동행축제(연 3회) 개최